

광주시·전남도 송년 기자회견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도 시정 성과와 2025년도 시정 구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주요 성과와 2025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정책 주도 모범도시 자리매김

## ●올해 광주시정 성과

### 복합쇼핑몰 순항·미래차 산단 유치 AI·창업 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

광주시는 올해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국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등 정책 주도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산단 근로자 아침 제공 등은 돌봄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국 표준이 되며 기본사회 모델로 확산하는 성과를 이뤘어왔다.

이러한 정책 성과들은 '국회, 광주의 날'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유치와 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기반을 확장했으며 반도체와 창업 생태계 강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진국-빛그린-미래차 산단으로 이어지는 '200만평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도 유치해 미래산업과 기존 제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천여건의 기업 과제, 288개 기업과 시민 5천422명의 실증을 지원했다. 252개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며 CES 2025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비롯해 5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반도체 산업도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가 성공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광주의 이름이 붙은 반도체 칩이 설계돼 시제품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 제품에 활용,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열 방침이다.

민선 8기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선언 이후 '5천억원 창업펀드' 목표액 조기 달성, 실증공간 도시 전역 80여곳 확대, '창업스테이션'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도 성과로 꼽힌다.

AI 영재고 지역대학-AI사관학교로 연결되는 AI 인재양성 사다리에 더해 '광주공업고 AI 반도체과'를 확대시키는 등 중·고등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3중 복합쇼핑몰 조성도 순항 중이다. 전방·일방 부지의 복합쇼핑몰 '더 현

대 광주'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하고 신세계 백화점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도 도시계획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내 조성될 '그랜드스타필드 광주'는 현재 설계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 공간은 창의적으로 변모를 꾀했다. 지난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의무화와 일률적 건축물 높이규제 해제 및 중점 경관관리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주상복합시설 상가 면적 의무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시키는 조례안까지 마련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88일 동안 70만명이 다녀가 국제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올해 연간 방문객 300만명 시대를 열어 당초 200만명 목표를 넘어섰다.

강기정 시장은 "2024년은 응축된 '광주의 힘'이 폭발한 한 해였다"며 "이 에너지는 전국 최초 '국회, 광주의 날' 개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광주FC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의 64개국 수출, 지방시대 4대 특구 석권,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부혁신상 수상 등으로 폭발했다"고 자평했다.

/변은진기자

# '글로벌 전남시대' 기틀 다졌다

## ●올해 전남도정 성과

###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의대 최대 성과 기획발전특구 등 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

올해 전남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도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본격화, 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권 국립의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신설을 공식화했다.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 설립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밟았으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대학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평가 인증을 신청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전남도는 2025년 3월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몫의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필수·공공의료체계 사명감 역할을 수행할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완수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전남 미래 100년을 담보할 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도 핵심 성과로 꼽힌다. 올해 전남도는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문화콘텐츠 등 기회발전특구에 5개 산업, 총 125만평이 지정돼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화순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인 1조4천억원 규모 여수시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신안군 국내 최대 96MW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운전 돌입 등도 대표적인 성과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1조3천억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착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전남정원 조성 등이 주목받았다.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우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 등을 통해 농수축산

업 AI·스마트화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SOC 분야는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연구용역 착수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등에 속도를 냈다.

적극행정도 빛을 봤다. 그동안 농업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상고온에 따른 비열구 피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고 정부에 건의한 끝에 피해 농가에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업재해법 개정을 의결하는데 기여했다.

지난 7월에는 788억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시행,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 가격 상승분의 50%,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올해 제13회 인구의 날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등 총 84건의 수상과 함께 14건, 43억 3천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이끌어냈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도민 행복과 획기적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쉽지 않았지만 '불굴의 정신과 모두가 함께 하는 대응정신'으로 더 큰 전남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